



왜 '58년 개띠' 일까



58개띠들의 이야기
임백천의
도서출판 화남 19500원

'58년 개띠'. 말이 필요없는 개띠의 대명사이다. 46년 70년생도 개띠인데 왜 유독 58년생만 '58년 개띠'라는 수식어가 붙는걸까. 58년 개띠는 4·19나 5·18 세대처럼 역사의 흐름에 주역으로 나선 적도 거의 없다. 그래서 58년 개띠는 사회에 섞이지 못해 비주류의 대명사라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그런데도 '58년 개띠'가 신드롬을 일으키는 원인은? 6·25 전쟁이후 생겨난 베이비붐의 절정을 이룬 띠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 집초같은 생명력을 지녀서일까. 아니면 사회의 비주류라는 피해의식이 강해서였을까.

전국의 58년 개띠들을 대표하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27명이 병설한 새해를 맞아 눈물겹고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벌써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책은 화남출판사가 최근 펴낸 <58개띠들의 이야기>.

이 책의 집필에는 가수이며 아내출신인 임백천 씨를 비롯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김강석 SBS 멀티미디어팀장, 김광일 소설, 김상철 중앙대 교수, 이대환 포스코청암재단 이사, 서울관 국립암센터 암예방센터 의사들이 참여했다. 특이한 점은 집필자중 유난히 입산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불교인인 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승속을 넘나든 사람들은 시인 장용철(윤이상 평화재단 사무처장) 방남수(도서출판 화남 대표) 이진영(문학과 경제사 대표) 판화가 류연복씨 등이다. 위영란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불교출판사인 민족사에서 근무하다 1996년 불교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상철 승의여대 겸임교수, 중광 스님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온 임백천씨 등도 함께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 살아온 58년 개띠들. 이들이 어떠한 힘과 에너지로

한 시대를 견뎌왔는가에 대한 시대적 증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용철 사무처장은 58년 개띠의 유년시절에 대해 "하루일과가 마을 산을 뒤져 불은 빠라를 줌의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위영란 국장은 "고교 평준화 1세대로 이른바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선배들은 우리와 동문화 명부를 달리했다. 이때 처음 사회가 얼마나 개인을 지배할 수 있는가 나를 대로 깊이 생각했었다"고 말을 이었다. 방남수씨는 "그 무렵 58년 개띠들은 하루 세끼 풀질하기도 어려웠다. 삼강학교 진학은 쉽지 않았다. 결국 공부를 위해 입산했거나 10.27법난등을 거치면서 다시 하산했다"며 "꼭 10년마다 인생이 바뀌었으니 참 극절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거의 절대시하던 당시 국민주권운동을 말할 외의와 했고, 교편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박박 가야 했다"고 임백천씨가 회상하자 이진영씨도 "지독한 여막살 냄새가 난다는 58년생들은 어느 주

집초같은 생명력으로 비주류 대명사에서 우리사회 주역이 된 58년생 27인이 풀어놓은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

류에도 편입되지 못한 채 존재의 확인을 위해 개처럼 활약하며 슬프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다"고 회답한다. "이제는 마흔아홉, 58년 개띠도 대부분 사회의 주역이 됐다. 하지만 부지런한 58년 개띠들은 아직도 치열한 삶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류연복씨는 "이제는 위로부터의 변혁이 아닌 밑으로 부터의 변화를 꿈꾸기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박상철씨도 "지금도 늘 마루장 밑에 웅크리고 있는 개처럼 고독해진다. 하지만 어울려 살기를 꿈꾼다. 한때 어울려 잡초다니는 개때처럼"이라고 독백처럼 얘기했다. 이진영씨는 "아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백발인 중년은 여막살을 잡지 못하고 절로 갈 생각만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지천명(知天命, 50세에 하늘의 명을 앎을 눈앞에 둔 58년 개띠들. 비록 지난 날들이 '슬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개처럼 팔팔한 인생을 살아보길 기원해본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불꽃처럼 지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대화

대담 휴머니스트, 도정일 외 지음
이 책을 읽다보면 내내 지속적인 긴장감과 빛나는 지성의 합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화'라는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 기법이다. 그 옛날 플라톤 할아버지도 그 효과에 반해 모든 저작을 이 방식으로 쓰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옛날의 대화는 일방적 혹은 산파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대담을 '반전 대화'라고 명명하고 싶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 천착해온 두 분이 생동감 있고 박력 있게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불꽃 같이 강렬하게 뇌리를 자극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어로 심오한 견해를 펼쳐내는 주입새는 감동 그 자체이다.(송주나무, aladdin.co.kr)



명사들이 말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

젊은 날의 깨달음 인물과사상사, 조정래 등 지음
"인생이란 연습도 재공연도 할 수 없는 단 1회의 연극"이라고 규정된 조정래는, 마흔살부터 20여년 동안 대화소설만 연달아 세 권을 써냈다. 이 외에도 정혜신, 박노자, 고종석, 손석춘, 장희영, 박홍규, 김진애, 홍세화씨 등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만한 이들이 젊은 날을 돌아보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방면에서 홀로 일가를 이룬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숙연해진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 복판에서 조용히 열정이 끓어오른다. 이것이 돈오(頓悟)의 느낌인지 점오(漸悟)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평생을 두고 매진해야 할 가치를 깨닫는다. (손병목, yes24.com)



환경을 논하러는 자, 우선 자신부터 바꿔라

2030 기후대응격 달팽이, 로버트 헨터 지음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 말이 이책의 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구는 우주에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별이지만 그 보석은 연한 대기에 작은 자력선에 의해 유지되는 작고 예소한 별이다.하지만 그안에는 사람의 인체만큼이나 복잡한 여러가지 시스템이 피드백과정을 반복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환경을 논할 첫걸음을 밟는다고 말하고 싶다. 이책에서 살펴지는 세계의 각종 환경 위협인자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은 마치 절벽을 등뒤로 하고 손에든 병든 사과를 먹어치우면서 조금씩 절벽으로 뒷걸음치는 인류의 모습을 낙인처럼 떠올리게 한다. (장지은, bookto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 마음은 그림을 아주 잘 기억한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시각화 방식은 기억력에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연관짓기를 할 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라. 마음속의 그림은 되도록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도록 하라. 예를들면 레몬을 기억하려 한다면 레몬을 한입 깨물었을 때 입안에 레몬맛이 퍼진 느낌을 상상하라. <백만불짜리 공부수업> 112~113쪽, 이순희 옮김, 용오름



○... 칭찬의 양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주도록 한다. 진정한 인정과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일단 칭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상대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만큼 아낌없이 충분하게 칭찬한다. 칭찬을 하기는 하는데 그 양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칭찬의 효과는 떨어진다. <4주를 꾸중당해 칭찬을 칭찬당해> 116쪽, 박성희 지음, 학지사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에의 희망

겨울나기 함유선 옮김 | 샘터사 | 8500원

"속이 텅빈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만 해요. 내면의 공허. 만일 나의 내면을 탐사할 수 있다면, 머리와 가슴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람처럼, 사막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들판처럼." 2004년 콩쿠르 단편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문단의 기대주 올리비에 아당이는 단편소설 '한밤의

여자'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눈이 평평 쏟아지는 거리에서 승객을 찾아 헤메는 택시기사는 아버지의 유골상자를 든 한 여인을 우연히 차에 태우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한다. 택시기사는 자신도 아버지의 유골을 파묻던 날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고, 승객과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지낸다. 지속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 순간만큼은 서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존주의로 한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이어갈 신예작가인 올리비에 아당의 단편 9편을 묶은 <겨울나기>가 샘터사 발간으로 나왔다. 아홉편의 주된 정서는 외롭고 낙약하고, 소외된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에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속 조청**

- 산속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속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속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는 **산속 참죽 조청** 1.2kg
아열,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속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기담, 배변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세거하며 100% 청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속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렛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송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 조청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역!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하여 명문대가 부인들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남녀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쇠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삼위염이 나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천식이 없어졌다.
- 만삼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입파선이 나아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아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아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서는 시주받사하는 마음으로 열기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에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들의 열의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원 한정)

1Box(60포 : 20만원)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출리 323번지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 www.mansam.net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바로보인의 책을
대형 문헌학 신사상역사 / 277쪽

건강 대선사의 인가제자 대원 문제원 선사님
역점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9대본!

바로보인 전통술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열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하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토록 밀밀한 질문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실현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저우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 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력이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고압난, 분체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를 첨가하여 어께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께걸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미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임장주도 예쁘게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번호 1143-12-049474 송영희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